

1 서남해 해역의 4월 해양사고 현황 (2021~2025)

□ 최근 5년간 4월 해양사고 평균(82건)

월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건수	81	56	78	82	81	88	112	110	114	118	103	101

□ 최근 5년간 4월 총 사고건수(412건) 및 총 사고척수(434척)

사고 유형	기관 손상	안전 저해	운항 저해	화재 폭발	총돌	전복	안전 사고	해양 오염	침몰	좌초	접촉	기타	합계
건수	158	60	18	21	23	13	23	7	6	26	7	50	4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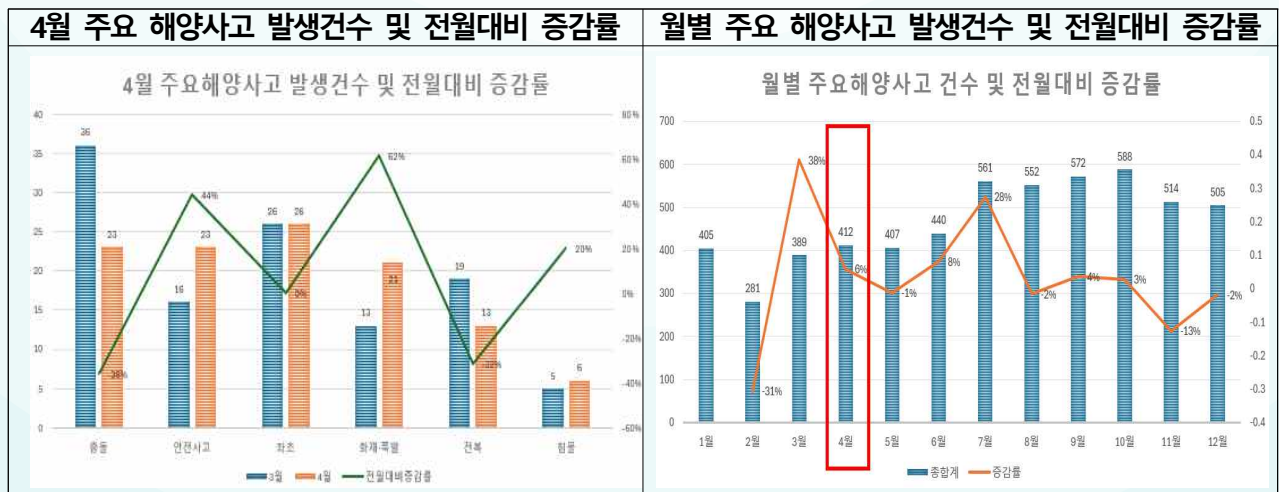
선종	어선	수상레저기구	화물선	예인선	유조선	여객선	기타선	합계
척수	298	63	16	20	6	11	20	434

□ 해양사고 현황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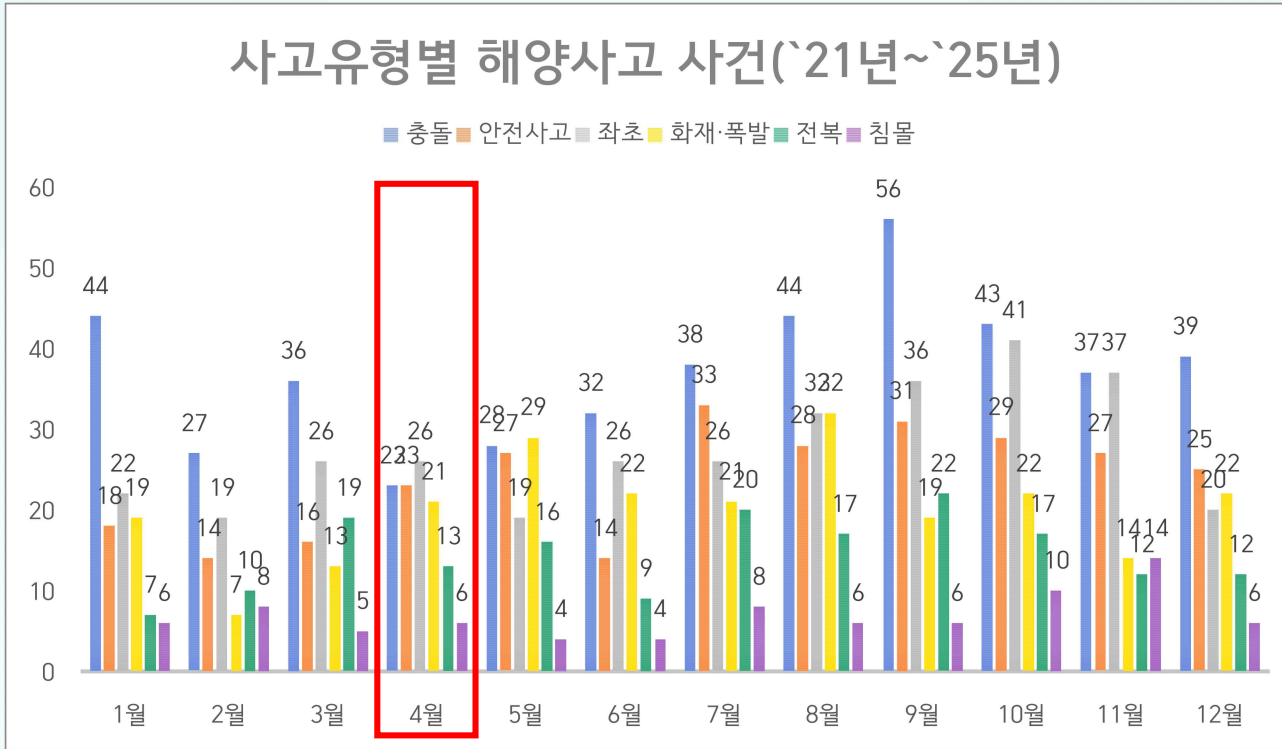
- (사고유형) 최근 5년(2021~2025)간 서남해 해역에서의 4월(412건)은 3월(389건) 대비 해양사고가 증가(▲5.6%)하였고 주요사고*는 총돌 23건, 안전사고 23건, 좌초 26건 및 화재·폭발(21건) 등 발생

*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총돌, 전복, 침몰, 화재·폭발 및 안전 사고 등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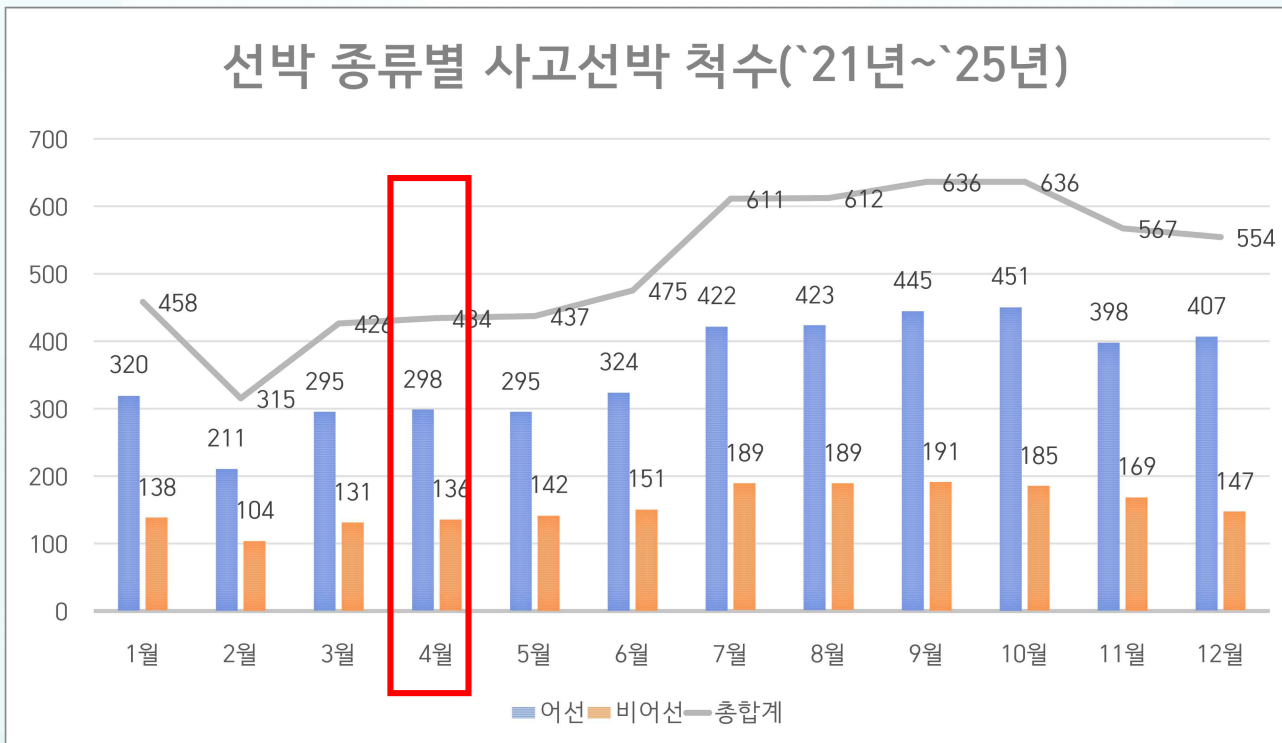
- (예방대책) 기온 상승에 따른 조업어선·레저활동 등 증가로 통항량이 늘고 안개 등 시정제한으로 총돌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



1. 주요 해양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



2. 선박종류별(어선·비어선) 해양사고 현황



1. 어선A호 · 모터보트B호 충돌사건

사건개요	선박	A호 : 어선, 9.77톤, 길이 13.43미터, 38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 B호 : 모터보트, 1.77톤, 길이 9.35미터, 200마력 가솔린 선외기 1기
	일시	2024. 5. 14. 19:19경
	장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13도 방향, 0.7해리 해상
	피해	B호 전복(우현 선체 일부 파손)
날씨	기상특보없음, 맑음, 남서풍 초속 2~3m/s, 파고 약 0.4m	
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, A호 선박의 선장은 항해중 단생각 등 선수 전방 경계 소홀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B호를 충돌 	
교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·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 ○ 선장은 항해 중 뿐만 아니라 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, 정박 중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음향신호를 울려 선박이 자선을 피해사 가도록 하여야 한다 ○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	
참고사진	<p>19:15 113도, 11노</p> <p>19:19 충돌</p> <p>A호 선수방위 113도 11노트</p> <p>충돌교각 23도</p> <p>B호 선수방위 270도 정박 중</p> <p>김녕항</p> <p>→서림냉리</p>	

2. 어선 C호 좌초사건

사건 개요	선박	C호 : 어선, 39톤, 길이 24.24미터, 25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
	일시	2024. 1. 31. 13:22경
	장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난도 서쪽 해안
	피해	해양오염 및 선체 전반 파손(전손)
날씨	기상특보없음, 흐림, 북동풍 초속 8-12m/s, 파고 약 1.5m	
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도와 난도 중간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자동조타로 항해했으며,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들이 있어 자동조타로 조금씩 우현 번침하여 어선을 피하며 항해하던중, 선박의 침로 상 난도가 있었음에도 남은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항해하다 사고 발생 2~3마일 전 잠이들어 난도 서쪽 해안에 좌초 	
교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해 당직자는 시각,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○ 항해 당직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○ 항해당직자는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로 항해하여야 한다. 	
참고사진		